

올해 전기차 사면 최대 1900만원 받는다

수소전기차, 최대 3750만원 지원
차량 가격·연비에 따라 차등 지급
9000만원 초과 차량은 혜택 없어



올해 수소전기차 넥소를 서울에서 구매하면 국고보조금 2250만 원과 서울시 보조금 1100만 원을 더해 3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 | 현대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21일 '2021년 무공해차(전기·수소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는 최대 1900만 원, 수소전기차는 최대 37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 대수도 늘었다. 전기차는 12만1000대, 수소차는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한다. 전년 대비 전기차는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전기차 보급 확대가 목표인 만큼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도 차별화하기로 했다. 가격이 600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00~9000만 원 사이의 차량은 50%,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 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들에

대한 보조금 혜택은 사라졌다. 6000만 원 이하 전기차도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현대차 코나 기본형과 기아차 니

로(HP)는 최대 지원액인 8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아이오닉은 733만 원, 르노 조에는 702만 원, 한국지엠 볼트는 760만 원,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모델은 684만 원을 지원받는다. 유일한 수소전기차인 현대차 넥소는 2250만 원을 지원받는다.

국고보조금 외에 지자체 보조금도 확대된다. 전기차의 경우 지자체별로 400만~1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니로의 경우 국고보조금 800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최대 1100만 원)을 더하면 최대 1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전기차 넥소의 경우 서울에서 구매시 국고보조금 2250만 원과 서울시 보조금 1100만 원을 더해 3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제공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경제현장.jpg



“황금빛 명품 ‘성주 참외’가 왔어요” 21일 롯데마트 서울 역점에서 이승훈 롯데마트 과일 상품기획자(왼쪽)와 모델이 올해 첫 출하된 성주 참외를 소개하고 있다. 경북 성주군의 첫 출하 물량을 100% 비파과당도로 선별해 고당도의 신선한 참외를 선보였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롯데마트

유통에 힘주는 네이버...BGF리테일과 맞손



유통 부문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네이버가 이번엔 편의점과 손을 잡았다. CU와 함께 차세대 편의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21일 BGF리테일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실험적인 온·오프라인 연결(O2O) 서비스 협업, 클라우드·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현장 도입, 기술 기반 차세대 편의점 구축, 중소기업(SME) 상생 모델 개발 등 중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SME와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예를 들어 온·오프라인 데이터 기반의 판매 제품 추천을 통해 편의점 점주의 매출 향상에 기여하거나, 네이버 인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선별한 상품을 CU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고객 경험이 융합되며 급변해가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BGF리테일과 함께 다양한 실험을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진준 BGF리테일 대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양사가 가진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이 유기적으로 합쳐져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다양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스마트주문을 통한 편의점 배달 서비스, CU 네이버페이 오프라인 결제 등 협업을 진행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롯데홈쇼핑, 오늘 모바일서 월간과자 판매



롯데홈쇼핑이 22일 오후 8시 모바일 생방송을 통해 롯데제과의 과자 구독서비스 ‘월간과자’(사진) 1개월 체험 상품을 판매한다. 매일 선정된 테마에 따라 과자 제품을 큐레이팅해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이번 행사는 계열사 협업을 통해 롯데홈쇼핑만의 차별화 상품과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했다. 정정욱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donga.com

금호타이어, 타이어 센서 개발...스마트 모빌리티 확대

센서모듈·무선통신기 KC인증 등 획득
스마트 타이어관리시스템 특허 출원



금호타이어(대표 전대진)가 최근 타이어 센서 모듈 및 무선 통신기 등의 KC인증과 국내 통신인증을 획득하고 타이어 정보 관리 시스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스마트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 상용화를 위해 전자통신 전문업체인 삼진, 루트링크와의 협업을 통해 센서모듈 및 무선 통신기 등을 개발 및 제작 중이다. 또한 스마트 타이어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모비스 업체와 최종 운영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7월 자율주행차 개발업체인 MDE와 기밀유지계약(NDA)을 체결, 관계사인 오토모스를 통해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도로에서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을 장착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11월 국가통

합인증마크인 KC인증과 통신사 전파인증을 획득했다. 이 테스트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타이어 정보 관리 시스템) 관련 특허도 출원 중이다.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은 각 타이어 내부에 장착된 센서모듈과 운전석에 설치된 전용 무선통신기를 통해 주행 중 공기압, 온도, 주행시간, 가속도 등 타이어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및 주의 알람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안전 주행을 위한 타이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타이어 헬스 정보 및 노면 상태를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시

스템이 필요하다.

개발 중인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일반 승용차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가 쉽고 편하게 타이어 및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통신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날씨 변화 또는 포트홀, 범프, 블랙 아이스 등의 노면 확인까지 가능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이 가능하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진행 중인 상용차량 테스트 정보를 바탕으로 타이어 정보 통합중앙관리시스템을 최종 점검하여 하반기 내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현재 국내 주요 통신사와 기술 협의를 논의 중이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연구본부장 부사장은 “앞으로 완성차기업, 통신사,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박용만 회장 “고 김상하 회장, 국가 경제 발전 이끌어”

故김상하삼양그룹 명예회장 20일 타계



방문하며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한중 민간경제협력회 초대 회장,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 고인의 생전 활동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다양한 기술 교육 활동을 추진했다”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향년 95세로 타계한 고 김상하 삼양그룹 명예회장(사진)에 대해 “국가 경제 성장과 대한상의 발전을 이끈 분”이라며 “우리나라 상공업과 기업을 위해 헌신하신 김 회장의 영면에 깊은 애도와 슬픔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상하 회장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12년 간 대한상의 회장을 맡아 역대 회장 수 회장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박 회장은 21일 추도사를 통해 “고인은 취임 해 열린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국내 기업의 외연을 해외시장으로 넓히는 데 기여했다”며 “경제사절단을 조직해 헝가리, 불가리아 등 경제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국가들을

이어서 “경영인으로서도 전쟁 후 국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경영이념으로 삼양사의 사업을 다각화해 국민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기업으로 변모시켰다”며 “운유와 화합의 리더십으로 대한상의를 국가 경제 발전의 민간 파트너 역할로 이끄시고 해안과 특심 경영으로 국내 식품 및 화학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덧붙였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준법위 활동 계속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 위원장과 위원들께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고 21일 밝혔다. 18일 재수감된 뒤 나온 첫 옥중 메시지다. 이 부회장은 18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최대 변수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도와 관련해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으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실효성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근 기자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